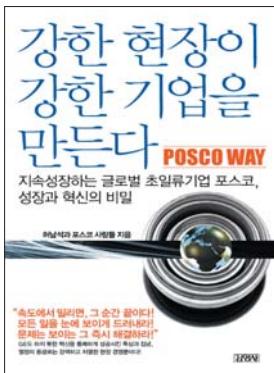




위기일 때 혁신하고,  
잘 나갈 때는 죽을 각오로 혁신해야 한다



## 강한 현장이 강한 기업을 만든다

저자 허남석, 포스코 사람들 | 출판사 김영사

2006년 7월 4일, 광양제철소의 전 사원과 가족, 외주파트너사의 전 사원, 광양 시민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광양제철소의 비전을 선포한다. 그 비전 선포식은 광양제철소와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소통한 의미 깊은 자리였다. 그리고 엔지니어의 30%를 혁신 업무에 배치하고, 남자들이 우세한 현장에 최초로 여성공장장을 발탁하며, 부서 간의 벽과 성별의 벽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벽을 허물자 비로소 사원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졌고, 광양제철소에서 시작된 혁신의 불길은 이내 포항제철소로 번져가 포스코 전체를 혁신의 불덩어리로 타오르게 만들었다.

이밖에 위력적인 현장을 만들기 위한 포스코형 식스시그마와 모든 일을 눈에 드러내는 VP와 문제를 보이는 그 즉시 해결하는 QSS 활동의 실체가 생생하게 공개된다. **HNA**

자료제공 | 교보문고